비판은 높음욕구의 왜곡

(마태복음 7:1~6)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비판은 높음 욕구의 왜곡>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비판은 높음 욕구의 왜곡'

비판은 높아지려는 욕구가 왜곡된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이란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은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움을 향한 삶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모셔 들여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점이 인간의 또 다른 본능적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높아짐의 욕구입니다. 마음을 채우고자 함이 죄가 아니듯이 이 높아짐의 욕구 또한 죄가 아닙니다.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마음의 채움을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를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채움의 성향이 있고 높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채우고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두 성향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에 두 성향은 왜곡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신 땅에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게 된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땅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약속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가짜 기쁨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선자의 모습은 채움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욕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늘 높음을 추구하는 대신에 땅에서 높아지기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지만 땅에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높음에 도달할 수 없고, 대통령이나 왕의 자리가 높다지만 마찬가지로 땅에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높음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땅에 붙어있는 한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래 사람이 높음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이 성향이 왜곡되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면 이 땅에서의 높음은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져봤자 전부 하늘 아래 일이기 때문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시조와 같습니다. 하늘의 높음을 가졌기에 새삼스럽게 땅의 높음을 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높고 낮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높고, 더 부유한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도 결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보다 높아지고자 한다면 결국 하늘 높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높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짐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많기에 높아짐을 무조건 배척해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높음에 대한 추구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대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높음의 욕구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이 가진 높아짐의 욕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원죄로써의 타락입니다.
이제까지 높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높음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본래 인간이 가진 높음에 대한 욕구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높음에 대한 욕구를 전형적으로 비판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판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어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캘빈이나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한 비판만을 문제로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높음에 대한 전제를 기준으로 삼아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복음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판단과 비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써 판단하고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판단과 비판은 다 정당하고 옳으십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판단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는 비판이나 판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옮기고 전하는 과정에서 비판이나 판단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인간에게 어떠한 판단과 비판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창조 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 안에서는 판단과 비판은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 세상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들의 마음가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더 의롭다 여기시며 14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은 높음을 향한 욕구의 왜곡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방식이 비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높음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자 높음을 향한 성향은 남아있지만 땅에서 높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여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시를 위한 낭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높아지려고 하는 왜곡현상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차를 가진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 게으르고 능력이 없다는 등의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높음에 대한 욕구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일단 비판으로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능력에 대한 비판이든 성향에 대한 비판이든 도덕적 비판이든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잘잘못이 티라면 나의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들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살인과 간음을 고발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 비판을 하였다면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왕보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상대적 높음의 자리를 취한 결과로써의 비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과 밀착을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높아짐에 대한 욕구와는 상관이 없었고 그 결과 다윗으로부터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회개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것을 낮아졌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리는 여전히 높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높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자신의 죄인 됨과 추악함을 깨닫고 한탄하게 되었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도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세리보다 높음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비판받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의 높음까지 오르고자 했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을 통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판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들보를 눈에 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의 내용은 누가 못 났다, 못 배웠다, 위선자다, 간음했다, 살인했다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당하는 사람의 잘잘못은 티에 불과합니다. 비판하는 마음의 구조 자체가 더 큰 들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하나님 우편까지 높아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으니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작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서려한다면 구원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경쟁 심리도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함이란 곧 좋은 방향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더 이상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좋은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곤란해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모두 모아놔도 하나님의 좋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진주는 땅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의 상징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세상 밖에 계신 가장 좋은 대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게끔 해주는 매개체가 땅에 있는 것들 중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체로써의 진주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부활과 승천입니다.
반면에 개와 돼지는 진주를 던져줘도 발로 밟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시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와 돼지는 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천하게 여기신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진주로써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며 비하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이방인이 인간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천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수가 성 여인도 사마리아인이었으며, 믿음을 칭찬하셨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로마의 백부장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개나 돼지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자 추구합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개와 돼지로 비유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발로 짓밟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하늘을 향해 높아질 수 있는 길인 복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짜 기쁨으로 얻었고 그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짜 높음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으로 원해서 실제로 성취한 자들이 개와 돼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거리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높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뜻에 의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대통령은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국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간절히 돈을 원한 끝에 부자가 된 사람, 권력을 추구한 끝에 대통령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그로 인해 마음을 채웠으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짜 기쁨을 가졌고 가짜 높음을 추구하여 성취한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짜 기쁨거리를 손에 쥔 자들이었고 가짜 높음을 추구하여 성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개와 돼지였고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똑같이 굶주려 있습니다.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 굶주려 있고, 높음에 대한 욕구에 굶주려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가짜 기쁨과 높음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기쁨거리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높으신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을 때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욕구를 따라서 가짜 기쁨과 가짜 높음을 성취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짓밟습니다. 복음이 이들이 가진 기쁨과 높음이 가짜임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그들이 가진 가짜 기쁨과 가짜 높아짐이 박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복음이라는 진주를 받아들였을 때에 짓밟는 개와 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끊임없이 진짜 기쁨거리 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진짜 높음의 보좌 우편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가짜 기쁨거리와 가짜 높음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가짜들이 죽게 하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진짜 기쁨과 높음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